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호 [루계 제23346호] 주제 100 (2011)년 1월 29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오자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동사과 김철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당의 부통과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오자, 이것이 오늘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김해체철련합기념소에서 일어나는 생산성양양의 열풍은 온 나라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적과 비약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펴게 할것입니다.»

김철의 동동계급은 충정의 열도로 주체의 쇠물을 끓이며 비약의 한 걸로 풀풀을 품은 대고조시대의 전파에 기여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당파 혁명앞에 무한히 충직한 김철의 실천력은 일간 결심한 것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고 조건없이 없이 말거진 혁명임무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온 한해 결사적으로 싸웠다. 그 나날은 온갖 시련을 물리치고 무섭게 일어서 당시 결심한 후조를 해내고 아마다 조선로동계급의 문제와 기질을 만천하에 펼친 나날이었다.

자립경제의 대승리를 선언하는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은 김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기적이다.

김철로동계급의 신념과 배짱, 기질과 본때는 위대한 당의 령도파와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신념이고 본때이며 기

상이다. 김철에서 변이 날 때마다 온 나라가 대경사로 맞이하고 천만 징장이 격정에 치는 것은 바로 김철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기풍이며 더없이 숭고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앞에는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 있다.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기여이 결정적 전환을 가져 오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풍물격전의 불길을 더욱 높여

김철의 신념은 어떤 광풍이 몰아쳐 당과 수령에게 다진 맹세를 깔까지 지키려는 절대 불변의 의지이며 김철의 본때는 남들이 염려하는 광풍을 끝을 걸어온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 건설원리를 끊어버기 위한 전면봉쇄를 각고로 걸어온다.

전면봉쇄를 드리면 장군님을 놓아두며 새해의 총진군에 더욱 박차를

를 가져야 한다. 오늘의 하루하루가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강성대국의 대문을 빛내어는 수령님의 힘으로 이익을 더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철로동계급처럼 자기 부문, 단위에서 주체의 신념과 유통계급처럼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전면봉쇄를 드린 김철로동계급의 열도로 심장을 불태우며 새해의 총진군에 더욱 박차를 끌어온다. 김철성동지의 100년사

를 빛나게 총화하고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회대의 명절로 맞이

하게 해제하는 창조의 기상이다. 김철의 실천력은 일간 결심한 것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고 조건없이 없이 말거진 혁명임무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온 한해 결사적으로 싸웠다. 그 나날은 온갖 시련을 물리치고 무섭게 일어서 당시 결심한 후조를 해내고 아마다 조선로동계급의 문제와 기질을 만천하에 펼친 나날이었다.

자립경제의 대승리를 선언하는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은 김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기적이다.

김철로동계급의 신념과 배짱, 기질과 본때는 위대한 당의 령도파와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신념이고 본때이며 기

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해에 선군군정신으로 난장을 맞았던 혁명을 끌어온다. 김철의 강성대국의 기상을 다시 한번 힘 있게 파시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훈에 끌

없이 충실했던 수령님의 참된 전자

제자가 되자, 이것은 김철의 보통계급이 생명처럼 간직하고 있는 우명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은 고난과 시련의 만난고비를

위한 장군님의 대고조령도실록은 혁사에 전무후무하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리상도 각오로 걸어온다. 함께 옆

협의 강행군동지가 되여 장군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밟는 길에 오늘

의 대고조의 승리가 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려주신 강성대국건설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주체

철생산체계를 완성하여 장군님께 최대의 기쁨과 만족을 드린 김철로동계급의 충정의 열도로 심장을 불태우며 새해의 총진군에 더욱 박차를

를 가져야 한다. 오늘의 하루하루

가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강행군실톡을 빛내이는 수령님의 힘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후손단계에 원

대한 불길과 퍼상을 내세우고 과감한

공격전으로 모든 전선에서 대비비

를 이룩하며 세상을 들었다는 신

군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더

많이 일제세워야 한다.

2012년에 사회주의 조선의 대

문에 강성대국의 문폐를 달리는 우

리 당의 결심을 실현하는데서 올해

의 충공격전은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파업은 방대하고 어려지만 김

철의 동동계급처럼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일어서면 막혔던 길도 열리

령도로 승리멸치는 장엄한 총진군이고 못해낼 일도 없다.

언제나 백두의 강행군정신으로 난장을 맞았던 혁명을 끌어온 선군군정신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령도실록은 혁사에 전무후무하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온 목표를 내세우고 기어이 점령하였는지를 진리를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자기 령도자의 드리운 데 차운 토끼에게 하는 열

사상과 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당앞에 다진 맹세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지키려는 척식의 의지,

제 힘으로 세계를 헤쳐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생산자들의 가

속에 세계를 끌어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만사를 해결하자. 이것은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래의 기술력이 새해에 주제의 쇠물을 뽑겠다는 만만한 투자와 배상이 김철의 기적, 김철의

최대의 성과를 얻어왔다. 오늘의 진정한 혁신은 일군들과 당원들을

과 근로자들의 심장에는 이러한 정신과 투쟁기篷이 차넘쳐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울해의 대고조령의 기본원칙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기업소를

개방하여 대고조령의 기술력을

증명하였다. 김철의 실천력이 새해에 주제의 쇠물을 뽑아내는 기쁨이다.

인민생활향상은 우리 앞에 나선 가

장 중요한 학습이다. 우리 당의 좌우명은 이민위기이고 최고의 희생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이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2년전 12월의 맹전 후위로

당조직의 드립없는 신조이다.

2012년에 사회주의 조선의 대

문에 강성대국의 문폐를 달리는 우

리 당의 결심을 실현하는데서 올해

의 충공격전은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파업은 방대하고 어려지만 김

철의 동동계급처럼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일어서면 막혔던 길도 열리

김철의 영웅적로동계급처럼 대고조

의 생명선을 지켜선 전초병답게 최

대의 마력을 내여 생산적양상을 높

으려 한다. 그 어느때보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기어이 점령하

여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토끼에게 하는 열

사상과 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당앞에 다진 맹세를 한치의 드

림도 없이 지키려는 척식의 의지,

제 힘으로 세계를 끌어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만사를 해

결하자. 이것은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래의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에서 혁신을 가져올수 있는 것은 기업소당조직과 일군들이 조직사업과

전투지휘를 잘하였기 때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해체련합

기업소의 모든 일이 잘되고 있는 것은

당조직과 행정이 일심동체로 있다

하고 행정경제사업을 정치화한

각급 기관과 사업장에서 대고조령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생산자들의 가

속에 세계를 끌어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만사를 해

결하자. 이것은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래의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과 기술력을 적극 퍼져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







## 애국애족의 손길아래 빛을 뿌리는 계몽기까요

이 땅에 민족적 향취와 정서를 한껏 둉구어주며 계몽기가 되어온다. 『고향의 봄』, 『그리운 강남』, 『반발』, 『학회류수』... 영양을 방문하는 남조선파 해외동포들은 어디에서나 울리고 있는 민요와 계몽기가요를 비롯한 민족적색채가 짙은 노래들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거제로서의 물을 헤아려온다. 그들은 계몽기로는 철현의 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이야기한다.

언제인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한 남녀의 한 동포는 『눈물꽃은 두 만강』을 들으며 홍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오랜 세월 갈라져 살아온 남과 북이 있으나 문화만은 옛 그대로 한 모습이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가고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는 세월의 탄핵속에 물 헤여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버릴까 하였던 계몽기까요. 그것이 지금은 민족음악사의 한페이지를 당당히 장식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민족의 질은 정서를 한껏 부여주고 있다. 계몽기로는 통해 민족의 수난 많던 지난날을 돌아쳐보며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는 우리 거제이다.

결세의 위인의 탈월한 령도로 우리 공화국에서 민족문화예술이 나날이 꽂쳐나는 속에

계몽기고요도 북과 남의 단합과 통일에 이바지하고 있으니 과연 여기에는 어떤 애국의 순길이 어려있는 것인가.

애국애족의 확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루는데서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자신다. 계몽기가요의 보급사업에도 겨레의 기쁨마다 민족의 열파 애국의 냄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나리의 통일업을 실현하시기 위해 노력하는 장군님의 헌신과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계몽기고요로 빠른 인식을 가지고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한 민족의 설을 물어온 일에 대해서는 나름의 계몽기로는 이를 고려해온다. 계몽기고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에서 나온 진보적인 노래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판계에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강화력을 가진다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이라면 비록 깊지 않으나마도 계몽기고요들이 겨레에게 전해지도록 하여서는 더운 평도 차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성을 지키거나다면 일컬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끊어졌던 혈맥도 다시 이룰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단합과 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반민년의 역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몽기로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하여 끊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96 (2007)년 3월에

발표하신 로작 『계몽기고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들의 유산이다』에서 계몽기고요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옮겨 계승 발전시킬 때 대하여 가르쳐하였다.

계몽기고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에서 나온 진보적인 노래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판계에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강화력을 가진다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이라면 비록 깊지 않으나마도 계몽기고요들이 겨레에게 전해지도록 하여서는 더운 평도 차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성을 지키거나다면 일컬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끊어졌던 혈맥도 다시 이룰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단합과 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반민년의 역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몽기로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하여 끊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96 (2007)년 3월에

발표하신 로작 『계몽기고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들의 유산이다』에서 계몽기고요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옮겨 계승 발전시킬 때 대하여 가르쳐하였다.

계몽기고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에서 나온 진보적인 노래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판계에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강화력을 가진다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이라면 비록 깊지 않으나마도 계몽기고요들이 겨레에게 전해지도록 하여서는 더운 평도 차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성을 지키거나다면 일컬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끊어졌던 혈맥도 다시 이룰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단합과 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반민년의 역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몽기로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하여 끊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96 (2007)년 3월에

발표하신 로작 『계몽기고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들의 유산이다』에서 계몽기고요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옮겨 계승 발전시킬 때 대하여 가르쳐하였다.

계몽기고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에서 나온 진보적인 노래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판계에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강화력을 가진다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이라면 비록 깊지 않으나마도 계몽기고요들이 겨레에게 전해지도록 하여서는 더운 평도 차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성을 지키거나다면 일컬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끊어졌던 혈맥도 다시 이룰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단합과 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반민년의 역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몽기로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하여 끊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96 (2007)년 3월에

발표하신 로작 『계몽기고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들의 유산이다』에서 계몽기고요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옮겨 계승 발전시킬 때 대하여 가르쳐하였다.

계몽기고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에서 나온 진보적인 노래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판계에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강화력을 가진다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이라면 비록 깊지 않으나마도 계몽기고요들이 겨레에게 전해지도록 하여서는 더운 평도 차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성을 지키거나다면 일컬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끊어졌던 혈맥도 다시 이룰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단합과 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반민년의 역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몽기로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하여 끊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96 (2007)년 3월에

발표하신 로작 『계몽기고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들의 유산이다』에서 계몽기고요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옮겨 계승 발전시킬 때 대하여 가르쳐하였다.

계몽기고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에서 나온 진보적인 노래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판계에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강화력을 가진다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이라면 비록 깊지 않으나마도 계몽기고요들이 겨레에게 전해지도록 하여서는 더운 평도 차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성을 지키거나다면 일컬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끊어졌던 혈맥도 다시 이룰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단합과 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반민년의 역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몽기로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하여 끊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96 (2007)년 3월에

발표하신 로작 『계몽기고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들의 유산이다』에서 계몽기고요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옮겨 계승 발전시킬 때 대하여 가르쳐하였다.

계몽기고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에서 나온 진보적인 노래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판계에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강화력을 가진다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이라면 비록 깊지 않으나마도 계몽기고요들이 겨레에게 전해지도록 하여서는 더운 평도 차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성을 지키거나다면 일컬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끊어졌던 혈맥도 다시 이룰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단합과 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반민년의 역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몽기로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하여 끊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96 (2007)년 3월에

발표하신 로작 『계몽기고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들의 유산이다』에서 계몽기고요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옮겨 계승 발전시킬 때 대하여 가르쳐하였다.

계몽기고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에서 나온 진보적인 노래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판계에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강화력을 가진다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이라면 비록 깊지 않으나마도 계몽기고요들이 겨레에게 전해지도록 하여서는 더운 평도 차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성을 지키거나다면 일컬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끊어졌던 혈맥도 다시 이룰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단합과 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반민년의 역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몽기로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하여 끊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96 (2007)년 3월에

발표하신 로작 『계몽기고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들의 유산이다』에서 계몽기고요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옮겨 계승 발전시킬 때 대하여 가르쳐하였다.

계몽기고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에서 나온 진보적인 노래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판계에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강화력을 가진다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이라면 비록 깊지 않으나마도 계몽기고요들이 겨레에게 전해지도록 하여서는 더운 평도 차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성을 지키거나다면 일컬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끊어졌던 혈맥도 다시 이룰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단합과 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반민년의 역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몽기로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하여 끊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96 (2007)년 3월에

발표하신 로작 『계몽기고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들의 유산이다』에서 계몽기고요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옮겨 계승 발전시킬 때 대하여 가르쳐하였다.

계몽기고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에서 나온 진보적인 노래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판계에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강화력을 가진다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이라면 비록 깊지 않으나마도 계몽기고요들이 겨레에게 전해지도록 하여서는 더운 평도 차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성을 지키거나다면 일컬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끊어졌던 혈맥도 다시 이룰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단합과 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반민년의 역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몽기로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하여 끊어졌다.

# 미국의 군비증강정책이 돌아오는 엄중한 후과

지금 미국의 군비증강속도는 세계적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의 스트홀름 국제 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군사비는 2,190억 US\$ 늘어났다. 국회에서 승인된 미국의 2011회계년도 국방예산은 7,250억 US\$이다. 예산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군사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오늘의 국제적 환경을 놓고 볼 때 미국의 군사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평전이 종식된 후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미국은 전쟁시기 대결 또는 비우호적 관계에 있던 여러 나라들과 군사·동맹·판례 등을 맺었다.

미국의 적성구역에 오른 나라들의 수도 펴거나 줄어들었다.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고 강점한 미국은 최근 시기以來에 주둔시켰던 미군부력을 많이 촉감하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부력을 축감할 예정이다.

국제적 환경은 미국이 군비를 증강할 때 어떤 리유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군비 확장정책에 계속 예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비증강정책을 강행하는 목적인 세계의 그 어디인 군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여 세계체계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무근거거나 과장된 견해가 아니다. 미국이 많은 자금을 들여 수립하고 있는 미사일방위체계도 다른 나라들에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기 위함이다. 세계대양 양쪽에 넘쳐져 있는 저들의 항공모함·전단들과 군사기지를 유지 강화하고 신형핵무기 및 운반·캐트기, 새 세대 전투기 등을 개발하는데만도 미국은 막대한 군사비

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세계를 제제하는 것이며 군비증강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무분별한 군비증강책은 세계에 엄중한 부정적 후과를 미치고 있다.

새로운 군비증강의 파도를 물어오고 있다.

지금 미국의 군사비가 늘어나면서 다른 대국들도 군사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 어느 한 나라 전문가들은 미국의 「비례로전」과 군비증강이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문제거리들을 군사적 경지에서 고화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군사비를 지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군비증강이 가장 눈에

띄게 조장화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와 중동 등에서 추종세력들을 리용하여 모략적인 사건들을 조작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한편 중국에 대한 반달형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고수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공화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비증강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나라 군비증강이 가장

치열했던 평전시대에도 자주 적대를

세우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유행으로

군비증강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도발책으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고수하기 위해서이다.

군비증강의 파도가 일면서 전쟁위험

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은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 거의 3,000억 US\$를 소비하였다고 한다. 보다 심이 전쟁은 엄청난 자금소비를 동반한다. 변화된 오늘의 국제적 환경에서도 미국이 군비를 계속 증강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간섭과 침략행위를 계속 강화하기 위해 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와 이란이 미국

의 다음번 공격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와 이란주변에 미군 무력이 대대적으로 증강해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제2의 조선반도를 노린 군사연습들을 끝없이 벌렸다. 미 해상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와 「F-22A 랩터」 스텝전투기들을 조선반도주변에 전개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도수를 높이면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을 도발할 기회를 노렸다. 이러한 군사연습에 만족은 미국은 엄청난 자금을 소비하였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 공화국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적 국방력을 배양으로 강화하면서 미제의 전쟁도발책으로 고도의 경각심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조강경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리적 억제력 강화에 힘을 넣고 있는 것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도발책으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고수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미국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새로운 군비증강과 전쟁에서 찾고 있다. 미국에서는 군사비가 늘어나는 것과 정비에 따른 예산赤字, 재정적자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미국은 군사비를 축당하고 엄청난 쟽동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딸리를 대내적으로 끊어나며 류통시키고 있다. 이로 하여 세계경제가 더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다수적인 국제통화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 아니다. 이런 속에서 딸리지배의 통화체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운명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군비증강책은 반역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이다. 미국은 군비증강정책이 세계뿐 아니라 자기자신도 해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토후기 인식하고 그것을 걸어치워야 할 것이다.

리경수

최근 중국에서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중국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동으로 지적소유권 침해범죄에 대한 의혹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범행행위를 막고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중국의 결심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된다. 중국에서는 지적소유권 침해범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2009년 10월에 청년대에 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다.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의 원동력으로써 58년 한해 동안에만 1,400분동안에 한세대씩 조립하여

거기에 리상적인 새 살림집을

세해 공동시설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을 지지하여 에스파냐에 본부를 둔 조선파의 친선협회가 1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유럽 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시장, 에드몽 줄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을 지지하여 1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세해 공동시설은 강성대 국의 대문을 열어 세계를 위하여 경기 위하여 경기 경제 위기를 겪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서 벗어나면서 서방세계가 악성 경제 위기를 받았고, 미국은 막대한 전쟁비용과 중동유기로 인한 통화팽창으로 하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서 벗어나면서 서방세계가 악성 경제 위기를 겪었고, 미국은 막대한 전쟁비용과 중동유기로 인한 통화팽창으로 하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지금 미국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새로운 군비증강과 전쟁에서 찾고 있다. 미국에서는 군사비가 늘어나는 것과 정비에 따른 예산赤字, 재정적자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미국은 군사비를 축당하고 엄청난 쟽동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딸리를 대내적으로 끊어나며 류통시키고 있다. 이로 하여 세계경제가 더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다수적인 국제통화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 아니다. 이런 속에서 딸리지배의 통화체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운명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군비증강책은 반역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이다. 미국은 군비증강정책이 세계뿐 아니라 자기자신도 해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토후기 인식하고 그것을 걸어치워야 할 것이다.

리경수

최근 중국은 외세의 존을 버

로 된다고 한다. 문건은 2009년 지적소유권 사법보호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지난 30여년동안의 지적소유권 사법보호사업을 강화하여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협성명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정신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정부